

珍島犬— 우리나라의 固有犬

李 政 吉·柳 甲 鉉*

全南大學校 獸醫科大學

光州市 西區 芳林洞 37-11*

(1988.7.8 접수)

Jindo dogs—Korean native dogs: A historical review

Chung-gil Lee, Gap-hyun Yoo*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537-11, Bang-rim dong, Kwangju*

(Received July 8, 1988)

Abstract: The origin of Jindo dogs has been controversial. It has been informed by words of mouth that they are the offsprings of either the dogs of Sung dynasty (960~1279 A.D.) in China or the Mongolian dogs.

Some breeds of dogs in Japan now have almost same appearance as Jindo dogs. The authors reviewed the history of Japan and found that Korean hunting dogs were sent to Japan in early 5th century, which was before Sung dynasty of China. Dr. Jae-Keun Ryu of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has done some work on serums of dogs of both Korea and Japan; the results of his serological and molecular biological studies indicated that Korean dogs were sent to Japan 1,300~2,500 years ago.

Jindo dogs appear to be the descendants of the dogs of the Stone Age. They have adapted themselves to the unfavorable environment of Jindo island so that they can maintain pure lineage and wild nature until today. It was concluded that they are Korean native dogs, not the offsprings of the dogs of Sung dynasty or the Mongolian dogs.

Key words: origin, Jindo dogs, Korean native dogs, Japan.

序 言

珍島犬은 다른 犬種에 比하여 여러가지의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¹ 그러한 우수한 성능때문에 日帝下인 1938년에 天然紀念物로 지정되어² 보호를 받다가 1962年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다시 天然紀念物로 指定되어³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진도개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잘 알려져 있는 개인데 森³은 그 起源을 옛날 石器時

代の 사람들이 기르던 개의 後裔가 전해 내려온 朝鮮 固有犬이라 記述하고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0년 뒤인 1970年代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珍島의 현지에서 口傳되어오는 俗說로 미루어 보아 中國의 宋나라 개나 蒙古犬이 진도개의 先祖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1,4}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俗說이 定說로 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蒐集된 文獻과 科學的인 研究의 결과를 整理함으로써 진도개가 우

* 本 研究는 1987年 文化公報部와 全羅南道 珍島郡의 支援으로 遂行되었음.

리나라의 固有犬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歷史的 考察

珍島犬의 起源에 관한 文獻은 1940年代에 日本人에 의하여 記述된 것^{2,5}과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진 것^{3,6-9}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森²와 高木⁵는 出土된 개의 遺骨을 비교해 본 나머지 珍島犬은 옛날 石器時代의 사람들이 기르던 개의 후예가 전해 내려온 것이며 中央아시아에서 滿州를 거쳐 韓國으로 이동하였는데 陸地의 것들은 西洋개 등 다른 개와 雜種이 되었으나 珍島는 섬이라 交通이 불편하여 다른 개의 출입이 적어서 비교적 純粹한 原型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李⁷는 西紀前 中國大陸에서 들어온 개들이 土着化하여 韓國固有犬으로 되었으며 그중 뛰어난 稟性을 지닌것이 全羅南道의 珍島犬과 咸鏡南道의 豐山犬이라고 주장하여 上記 森와 高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珍島에는 진도개의 起源과 관련된 몇가지의 說이 口傳되어 오고 있는데 그 하나는 宋나라 漂流犬說로 中國의 宋나라(西紀 960~1279年)와 高麗사이에 交易이 활발했던 歷史的인 사실에 비추어 珍島열을 지나던 宋나라의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하고 그 배에 실렸던 개가 珍島에 건너와 진도개의 先祖가 되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蒙古犬說로 西紀 1270~1273年 三別抄軍을 토벌한 蒙古軍이 珍島住民을 자기나라로 데려가 노예로 삼았다가 3년뒤에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개를 가져와 기르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진도개라는 것이다.⁸

위와 같은 두가지의 傳說 이외에도 朴³과 李⁴는 朝鮮朝初期에 珍島郡 智山面에 軍馬育成牧場이 設置되었고 그 牧場에서 番犬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蒙古에서 들어온 개가 진도개의 原種이라는 說을 소개하였고, 任⁹은 우리나라 土種의 개가 珍島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생겨났것이 진도개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日本의 史實에 눈을 돌려보면 仁德天皇 43年(5世紀初)에 奇異한 새 즉 매를 잡아 길들이는 다음 처음으로 사냥을 했다는 기록¹⁰이 있으며 養鷹記¹¹에는 그 보다 3년뒤에 우리나라 百濟의 사냥개가 매와 함께 日本으로 건너간 사실이 적혀있다. 그 一部를 우리말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仁德天皇 46年(5世紀初)에 百濟의 使者가 매와 개를 獻物로 우리나라에 가져왔다. 바다를 건너온 배가 越州 敦賀津에 도착했는데 매를 길들이는 사람의 이름은 米光이었고 개를 길들이는 사람의 이름은 袖光이었다. 이때 가져온 개는 검은 얼룩박이

[黑駝]이었다. 政賴가 王의 勅命을 받들어 敦賀津에 가서 百濟의 使者를 영접하였다. 이즈음 우리나라에 서는 매를 부리는 일이 서둘러서 政賴가 米光을 모시고 그 방법을 모두 배워서 익힌 다음 다짐내 매가 사람의 어깨위에서 개를 인도하여 사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李⁷는 다수의 사냥개가 百濟의 聖王(西紀 523~553年) 우리나라에서 日本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저들의 기록인 養鷹記¹¹에 나타난것 보다 약 100年後의 일이라 하겠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개가 日本으로 건너간 史實을 日本人들의 기록인 日本書紀¹²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天武天皇 8年인 西紀 679年과 同 14年인 西紀 685년에 각각 新羅의 調로서 말이나 노새와 함께 개가 日本으로 건너간 것이다.

위와 같은 史實을 뒷받침하는 科學的인 연구가 최근에 國立環境研究院 水質研究部의 柳在根 博士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珍島犬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개와 日本개를 대상으로 한 血清學的 및 分子生物學的인 연구의 결과(未發表 資料) 지금으로부터 1,300~2,500年前에 우리나라의 개가 日本으로 건너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科學的인 연구의 결과에 史實을 맞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개가 약 1500年前에 日本으로 건너간 것이 分明해지게 된다.

우리의 固有犬 珍島犬

개는 사냥을 위하여 가장 먼저 家畜化된 짐승인데¹² 요즘에는 用途에 따라 집지키는 개, 牧場개, 사냥개 또는 軍犬으로 分類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特性들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¹³ 진도개는 여러가지 우수한 품성을 지녔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狩獵性이 뛰어나서¹⁴ 先天的인 사냥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⁷ 이러한 우수한 특성은 자연과의 접촉에서 획득되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며¹⁵ 陸地의 개와는 달리 섬이라는 특수성때문에 珍島에 있던 개는 비교적 순수한 血統과 野性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특히 뛰어난 狩獵性은 劣惡한 조건에서 生存을 위한 本能으로 간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歷史의 흐름으로 보거나 日本人의 기록²으로 봐서도 石器時代의 사람들이 기르던 개가 中國大陸에서 滿州를 거쳐 우리나라에 왔으며 그중 일부가 日本으로 갔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위에 列擧한 史實이나^{10,11} 科學的인 연구에 의하면(柳在根, 未發表資料) 百濟나 新羅에서 日本으로 개가 건너간 것은 中國의 宋代나 三



Fig 1. 珍島犬, 黑狗 “네눈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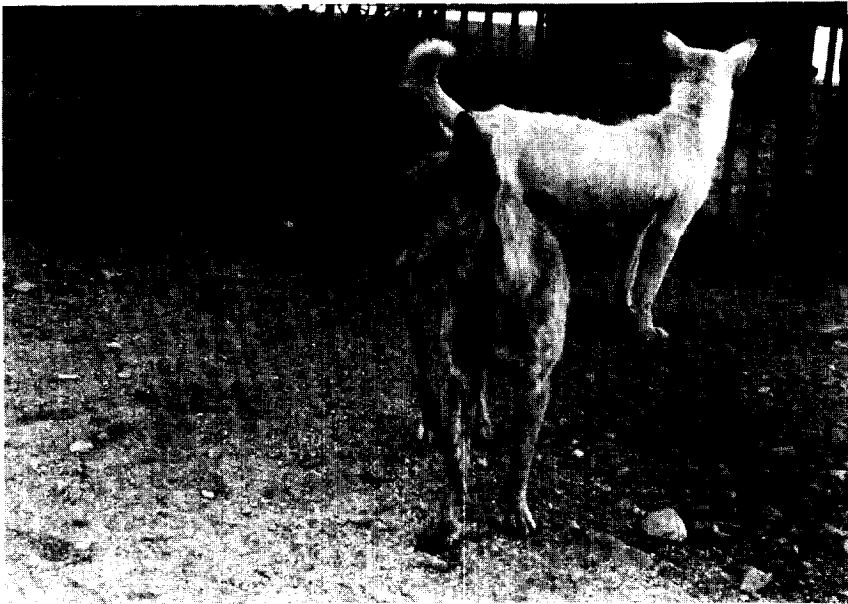


Fig 2. 珍島犬, 白狗(後)와 “虎斑”(前).

別抄亂 보다 훨씬 앞서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개가
日本으로 건너간 5~6世紀에 우리나라에 퍼져있던 家
犬은 주로 사냥에 이용되었을 것이며 그 중에 사냥에
뛰어난 것들을 日本에 보냈으리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5~6世紀頃 우리나라에
퍼져있던 개는 주로 사냥에 이용되었으며, 陸地개와는
달리 珍島에 있던 개들은 그 血統이나 野性이 비교적

순수하게 유지되어 오늘의 진도개가 되었고 그때 일부는 日本으로 건너가 形質을 오늘날까지 유지함으로써 언뜻 보아서는 珍島犬과 區別하기가 어려운 현재의 秋田犬, 紀州犬 그리고 柴犬 등이 되었다는 사실이다.³

앞에서 인용한 養鷹記¹¹에 百濟에서 日本으로 간 개는 검은 얼룩박이이었다. 그러한 毛色을 가진 개는 1937年 森²가 본 珍島犬의 毛色中 黑色이나 黃褐色 바탕에 黑色을 띤 소위 虎斑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수가 많지는 않으나 요즘에도 진도개중에는 그와 같은 색깔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寫眞 1 및 2).

따라서 진도개는 宋나라 개나 蒙古犬의 후예가 아니라 石器時代의 사람들이 기르던 개의 後裔가 珍島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血統과 野性을 비교적 순수하게 유지하면서 土着化한 우리나라의 固有犬이다. 이와 유사한 見解로 齊藤¹⁶은 日本犬의 先祖를 論하는 論文에서 有史以前의 家犬이 有史以後에 다소 다른 개의 영향을 받아 固定된 것이 오늘의 日本犬이며 日本各地의 地方的 特色을 띠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結 言

지금까지 蒐集된 文獻과 遂行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珍島犬의 起源을 考察했다. 俗說로 口傳되어 오는 蒙古犬說이나 宋나라 漂流犬說은 근거가 매우 애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珍島犬은 石器時代의 사람들이 기르던 개의 후예가 珍島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血統과 野性을 비교적 순수하게 유지하면서 口傳되어오는 俗說의 蒙古犬이나 宋나라 漂流犬과는 관계없이 土着化한 우리나라의 固有犬이다.

參 考 文 獻

1. 金允奎, 金載弘, 李政吉等. 珍島犬의 保護育成에

關한 研究. 基礎調査. 진도개 保護育成委員會報告書, 全羅南道 珍島郡 1986;4~5.

2. 森爲三. 珍島犬 (朝鮮固有犬). 日本犬 1940;9:38~44.
3. 金井昊. 珍島犬. 光州: 全南日報社 1979;25~50.
4. 李政吉, 韓邦根, 金永柱等. 珍島犬의 生理的 特性에 關한 研究. 全羅南道 珍島郡 研究報告書 1987;7~11.
5. 高木五六. 朝鮮犬と 其の 毛皮. 朝鮮總督府 林業試驗場 報告 1943;34:1~39.
6. 朴鍾萬. 韓國珍島犬에 關한 研究. (第1報). 韓畜誌 1971;13:92~106.
7. 李相旻. 狩獵秘話. 서울: 博文社, 1971;322~335.
8. 李源達. 珍島개 純種은 사라져 간다. 中央日報 1971.6.17.
9. 任炳喆. 한국의 진도개. 光州: 三洋出版社, 1985;31~37.
10. 坂本太郎. 日本書紀(下卷). 東京: 岩波書店, 1982;409, 439 및 476~477.
11. 塙保己一. 群書類從 第19輯(養鷹記). 東京: 平文社, 1987;483~485.
12. Hart BL. *The behavior of domestic animals*. New York: WH Freeman Co, 1985;1~7.
13. Migliorini M. *The Doberman book*. New York: Arco Inc, 1985;2.
14. 李聖根. 珍島犬의 正統性 恢復. 湖南教育 1987.2. 16.
15. Dubos R. *The wooing of earth*. New York: C Scribner's Sons, 1980;57~60.
16. 齊藤弘. 日本犬의 祖先. 日本犬 1936;5:1~7.